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지침 시달회의

7월10일까지 가입신청서 작성후 체결



포천시는 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농축산과 농업경영담당과 각 읍면 산업담당자, 농협실무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지침 시달회의'를 개최했다.

포천시는 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농축산과 농업경영담당과 각 읍면 산업담당자, 농협실무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지침 시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진수 시청 농업경영담당장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수확기에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쌀생산 농가에 보전해, 농가의 소득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농업인들이 소득안정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직불제 대상농지에 실제 0.1ha 이상의 벼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속가입 농업인은 2003년도

약정면적에 한해 ha당 9천680원(기준가격의 0.1%)을 부담하면 되며,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ha당 4만 8천440원(기준가격의 0.5%)을 납부해야 한다.

약정체결 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며, 희망 농업인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이장 또는 통장에게 논벼재배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주소지 지역농협과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약정 체결한 농업인은 올해 수확기 쌀값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한 금액의 80%를 내년 4월에 지급 받게 된다. 올해 기준가격은 쌀 80kg당 15만4천102원(벼 40kg 기준 5만3천441원)이다.

단, 2004년도 정부 추곡수매 약정면적과 정부보급증 생산을 위해 채종단지로 선정된 논은 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복 기자best114@hitel.net

근로자의 안전확보 기업의 안전경영

한국산업안전공단 포천하수종말처리장 안전교육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원장 양동주)은 지난 4일 포천시 신북면 소재 포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제 99차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포천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자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안전점검에서 포천시 재해율은 1.84%로 전국 평균 0.90%보다 2배 이상 높아 산업재해가 심각하다는 진단이내 사전에 철저한 안전점검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자의 안전확보는 기업의 안전경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전체 사업장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금, 기술, 교육을 무료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양동주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장은 "하수종말처리장은 공익을 위한 산업체로 포천지역

안전의 선두주자가 되길 기대한다"며 "포천지역 발전을 위해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준설작업 중 유해가스 중독에 의한 사망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17일 모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유입관로 준설작업을 위해 유입관로내의 슬러지 및 토사가 쌓인 상태를 확인하려고 재해자가 생활하수 유입구 분

배도 사다리를 통해 들어가던중 내부에 유독가스(황화수소, 메탄 등)가 잔재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수직사다리로 올라오면서 가스라는 소리를 친 후 맨홀 내부 바닥으로 추락하고 구출하기 위해 2명 사망, 1명 부상의 재해가 발생했다.

이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안전점검이 필수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병갑 기자 jpk61@hanmir.com

"범죄율 30%감소 효과 계속됩니다"

최원일 포천경찰서장



포천경찰서가 방대 한 지역면적에 비해 소수의 인력으로 완벽한 치안태세를 유지하여 범죄율이 30% 감소했다.

범죄자들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철저한 치안유지에 나서고 있는 포천경찰서 최원일 서장(사진)을 만났다.

"수원산을 중심으로 43면국도와 47면 국도의 진입로에서 감문검색을 강화하여 포천으로 유입되는 범죄요소를 막는 것을 핵심으로 한 치안유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취약시간대인 저녁 9시부터 새벽1시까지와 밤11시부터 새벽2시까지 합동검문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 서장은 여기에 직원들의 근무태도와 정신교육에 나서고 있다.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강조하여 각자 직원이 경찰서장이라는 생각으로 근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최 서장은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할 것을 주문한다. 말단 직원이라도 경찰공무원이라는

신분은 막강한 파워를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은 곧 내가 떳떳할 때와 자신의 업무과외에 완벽할 때 가능하다 고 강조한다.

예를 들면 학교인근의 학생들의 움직임과 금융기관앞 오토바이족들의 신상을 미리 확보한다면 그들의 범죄요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야 한다. 당당하고 멋있는 경찰상은 곧 자신의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다.

최 서장은 "공무원은 업무에 정통하면 힘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

하며 포천시청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도 "허가를 잘 내주는 공무원"상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허가담당공무원지정제를 실시해 허가 많이 내준 공무원을 포상하는 제도를 정착시킨다면 포천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귀띔한다.

당당한 자세로 서울시보다 1.4배가 넓은 포천지역의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최 서장의 든든한 모습은 포천의 범죄요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재해 대비해 방재교육 실시

포천시 재해대책본부는 31일 재해대책상황실에서 시청과 각 읍면 동사무소 관련 직원, 유관기관 재해대책 담당자 등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지역 방재교육을 실시했다.

재해를 사전에 막고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방재 시책 일반 ▷재해유형별 대처요령 ▷금년도 기상재해 전망과 방재대책 등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외수기자 les582@hanmail.net

공휴지가 아름다운 화단으로

도로 확장공사로 생긴 공휴지가 포천시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화단으로 변해 눈길을 끌고 있다.

포천시 영중면 성동삼거리 교차로 방아벌 주변이 그 곳으로, 시는 '우리 꽃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1,565만원의 예산을 들여 800㎡ 면적의 공지에 포천구절초와 부채꽃, 옥잠화, 원추리 등 모두 23,300본의 꽃으로 화단을 조성했다.

주민들은 화단 조성으로 도로변 경관이 아름다워진 것은 물론, 일부 운전자들의 오물 투기로 인한 환경 오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의 '우리 꽃길 조성사업'을 환영했다.

정병갑기자 jpk61@hanmir.com

청소년시설 합동 특별소방점검

포천소방서, 6월15일부터 17일까지

포천소방서(서장 이대열)는 오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여름철 안전사고 대비 관내 청소년 수련 시설 7개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특별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소방, 건축, 전기, 가스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치·구조 변경사항, 비상구 등 긴급피

난 장애여부, 화재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내장재 불연화여부, 소방시설유지·관리상태, 안전관리자의 적정업무 이행여부, 무허가 위험물의 사용여부, 노후 전기시설 사용여부, 가스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비상구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시설불량사항은 사항에 따라 시정보완, 또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타법령 위반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에 불량사항을 공개기로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 점검시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소방에로사항 직소실을 연중 운영하여 경제 살리기 극복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안전점검의 적기수행으로 각종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송지현기자 1070-sjh@hanmail.net

학업·생활장학금으로 청소년 육성

포천시 모범청소년 장학증서 전달



포천시는 지난 31일 경기도 청소년장학생 66명과 포천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생 8명 등 모두 74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경기도 청소년장학생 가운데 자녀 21명과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2명은 입학금과 수업료에 상당하는 학업장학금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35명과 실직자가정 자녀 3명, 자활청소년 4명, 입업인 자녀 1명 등은 장학금 4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의 생활장학금을 받게 된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역시 같은 금액의 생활장학금을 받는다. 앞서 포천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중고등학생 자녀 가운데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자원봉사활동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으로 기관, 단체장 표창을 수상한 자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체능 및 기능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을 받은 바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공장 직영 장갑 · 테이프 · 각종 끈

농업용 비닐 농자재 전문 "일신포장비닐총판"



- + 마대 · 보루 · 본드 · 랩 · 실리콘 · 가구용비닐
- + PP · PE · 하이텐 · OPP 테이프 · 차광막
- + 농업용 비닐 · 각종 포장끈 · 밴딩기계판대/A/S

